

북 ‘핵실험장 폐기’ 이행…南 기자는 거부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상황 관리 하는 듯…‘23~25일 폐기’ 취재 위해 미·영 등 4개국 원산으로 이동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남측 기자단의 방북을 끝내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오늘 오전 9시 판문점 개시통화를 했고 기자단 명단을 통지하려 했으나 북측은 여전히 접수하지 않았다”면서 “오후 4시께 판문점 채널이 종료됐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측 연락관은 “지시받은 것이 없다”며 접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취재진 8명은 전날 베이징에 도착, 판문점 채널을 통한 남북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기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발길을 돌리게 됐다. 북한이 지난 1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와 관련한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 통신사와 방송사 기자를 각각 4명씩 초청한다고 알려왔지만, 정작 명단 접수는 거부했다. 남측은 지난 18일부터 명단 전달을 시도했다. 정부는 이에 조명균 통일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에 우리측 기자단을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후속조치가 없어 기자단의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남북 간 모든 합의들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과거의 대결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변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핵실험장 폐기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23~25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남측 기자단이 추후 별도로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베이징 특파원인 원종혁 기자는 이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제가 보기에는 희망을 품고 내일까지 기다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육로 방북에 대한 통향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면서 가능성을 낮게 봤다. 남측을 제외한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등 4개국 외신기자단은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해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고려항공 전세기를 통해 원산으로 들어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진행한다고 남측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언론에 취재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北 의중 궁금”…문 대통령 ‘중재역’에 워싱턴 이목 집중

1박4일 일정으로 방미

22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 회담을 위해 21일 1박4일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워싱턴 조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최근 태도 돌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해온 문 대통령을 통해 전해질 ‘북한의 의중’과 이후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는 흐름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3주 앞두고 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평양이 비핵화에 대한 협상에 진지한지를 두고 미국 측이 진의를 파악하는데 부신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백악관 방문은 당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전략을 조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나,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상황 변수가 발생하면서 ‘위기 대응·관리’의 성격이 커졌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초 한국 측이 전달한 것에 비해 비핵화 문제에 대해 경경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문 대통령이 판단해줄기 기대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19일 심야에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배경 등을 놓고 조언을 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의 영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일부 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문제에서의 진전을 강하게 바라는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협상 의지를 실제보다 ‘과장’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개인적으로 내비쳐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방북, 김 위원장과 면담했지만 김 위원장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되거나 실패한다면 이를 통해 재임 기간 가장 큰 외교적 패거리를 거두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 사이에서는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 측의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 거

론과 관련, 미 정부의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시험해보려는 북한의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의 중재와 난기류에 휩싸인 북미정상회담 준비 상황이 좀더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워싱턴 외교계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靑 “북미정상회담 99.9% 성사”

“북 입장서 이해하려 노력”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대미·대남 비난으로 조성된 한반도 경색 국면에도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1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은 지금 99.9% 성사된 것으로 본다”며 “다만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4번째를 맞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양자회담과 관련, “만남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 상황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정상 차원의 솔직한 의견 교환이 주목적”이라며 “그래서 정상회담 진행 방식도 과거와는 달리 딱 두 정상 간 만남을 위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행원들이 배석하는 오찬 모임이 있지만 두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식의 모임을 하라고 한미 간 양해가 돼 있다”며 “그래서 사실 수행하는 저희도 두 분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 예측을 전혀 못 하는 상황이며, 바로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선 “6·12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중요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할지, 그 합의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두 정상이 그 두 가지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개 정상회담은 사전에 많은 조율이 있고 합의문도 사전조율이 끝나는 게 관행이지만 이번은 그런 게 일절 없이 두 가지 토픽만 갖고 만난다”고 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싸잡아 비난하고 나선 상황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북한 측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펜스 “북, 리비아처럼 끝날 수 있다” 경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비핵화 협상이 이뤄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리비아처럼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리비아의 독재자인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전복되는 과정을 암시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 출연해 “지난주 리비아 모델

과 관련한 어떤 얘기가 있었다”며 “알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 것처럼 만약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안은 리비아 모델이 끝났듯이 끝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비교가 위험처럼 들린다는 언급이 나오자 “글쎄, 나는 그게 사실에 더 가까운 것 같다”고 경고임을 시인하는 답변까지 내놓았다. /연합뉴스

“북미대화 진전 돼도 남북회담 중지 해소 안돼”

일본 조선신보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2일 “조미(북미) 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면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사태도 저절로 해소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이날 ‘조선(북한)은 평화의지 실천, 미·남은 전쟁연습에 골몰’이

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을 겨냥한 전쟁소동이 계속된다면 북한 고위급회담의 중단 상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함동 군사연습은 적대시정책의 노골적인 표현이며 핵전략자산이 투입되는 군사연습은 핵위협 공갈 그 자체”라고 비난하면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만 미국의 속내는 실천 행동을 통해서만 증명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식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배줄음~~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동력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 · 전원주택지

- 고창군 읍 석정온천부근 3600㎡ 단지 조성 중음 3억5천
- 완도 악산면 득암리 바다절 2481㎡ 민박집적합 분할가능 2억4천
- 신안군 압해도 북풍리 1810㎡ 저수지옆 조용한생활적합 4700만원
- 곡성 삼기면 대지등 681㎡ 광주서 30분내 5300만원

주택 · 유희 · 아파트

- 월산동 제일아파트 89㎡ 9층 남향 전방중음 1억
- 전원주택 함평 해보면 대지 966㎡ 집 79㎡ 터미널에서 차로5분 1억5500

투자 · 매도 · 교환

- 무안군 운남면 내리 전원주택적합 5000㎡ 법인이전 1억6천
- 무인텔부지 화순 도곡면 2008㎡ 위치중음 6억천
- 수목장(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중음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쌍촌동 소방대 대지 118㎡ 상가주택 적합 1억5천
- 신안동 전대문점 토지 160㎡ 주택 70㎡ 찻집등적합 1억7300
- 고흥 니로도부근 판선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6천
- 충장로 5가 도로점 상업지 490㎡ 상가주택 7억6천
- 월산동 양면 소방도점 2중 주거지 873㎡ 12억7천
- 장성읍 수성리 신99503㎡ 공사가 1억8천 매도 3억2천
- 나주 남평 드림건반 27347㎡ 유리온실 등 적합 23억

상가건물

- 수기동 사거리 대지 152㎡ 3층 상가주택 292㎡ 4억2천
- 남구 서동 3층 상가주택 대지 156㎡ 건평 233㎡ 2억3천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적합 69억
- 북동 5층건물 대지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충장로5가 요지 대지 261㎡ 5층건물 1128㎡ 은행 15억 매도 24억
- 순천만 판선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 내매출 1억천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중음 11억
- 장성 면소재도면 땅364㎡ 건평544㎡ 은행3억 신고4억4천 매도4천
- 장성읍 영천리 땅806㎡ 건평490㎡ 3층에170원대 은행2억4천 매도5억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감정가 40%인하 급 모텔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감정가 30%인하 급 모텔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